

2019년 6월 30일 주일설교 :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8	
마 6:9-13	기도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 시작하는 말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이가 간절히 구해도 우리는 어느 이상 그 아이에게 해주기가 어려운데 반해 내 아이는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아니 아이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주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 중심 되는 말씀

1.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주신 기도는 먹는 것과 관련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부대끼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매일의 삶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믿음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일상을 위해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내 경험, 내 물질, 내 지식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 안에는 '매일', '날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일용할 양식을 쌓아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봐도 여러 벌의 옷이 있고, 이미 풍족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 정리하는 말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낮은 위치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모두 일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찬254)

- 1)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 2)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 3)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 4) 큰 죄인 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 5)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후렴)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